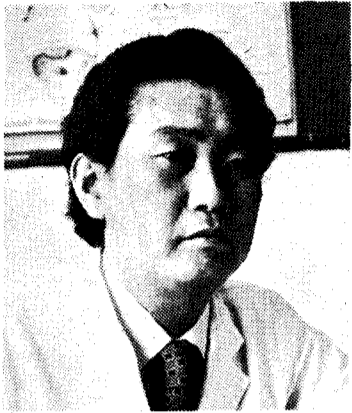


膀胱癌



權誠遠

(梨花醫大 泌尿器科 교수)

비뇨기과영역에서의 암종(癌種)은 방광암외에도 전립선암, 신장암, 요관암, 고환암, 부신암, 음경암 등 모든 비뇨기과적 구조에서 모두 생길 수가 있지만, 방광암은 한가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체 다른 부위의 암과는 달리 비교적 초기에 경고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마다 다 질병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과로나 긴장 등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더 많다. 그러나 어떤 증상은 반드시 기질적인 질병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또

이런 증상은 전문적인 의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비뇨기과영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 즉 혈뇨이다. 혈뇨란 오줌이 형성되는 콩팥에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에 이르기까지의 요로에 어떤 문제가 있으므로써 피가 나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혈뇨라는 증상은 요로의 어딘가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있음을 나타내는 적신호다.

혈뇨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와 눈으로 보기에는 맑은 소변인데 현미경으로 검사시 적혈구가 나타나는 현미경적 혈뇨가 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즉 소변이 검붉거나 핏덩이가 섞여 나온다고 진행된 병이거나 악성을 의미하고 현미경으로 보일 정도의 미미한 혈뇨라고 해서 질병의 초기이거나

初期 血尿 증상 있으면 위험신호

가볍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혈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나이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나, 연령, 성별에 따라 혈뇨를 일으키는 질병이 대체로 구분이 되고 있을 뿐더러 현재는 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방광에서부터 우리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신장내부까지 들여다

전문의를 찾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일이다.

필자가 아는 친구중에 모종 합상사의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는 K사장이 있다. 수년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출장중에 호텔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변기를 보니 붉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도 여행에 지친 몸이라 과로해서 그럴것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후로는 소변볼 때마다 유심히 보아도 맑은 오줌뿐이었다.

귀국해서 필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필자로부터 중년 나이의 혈뇨는 반드시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지만 평소 건강에는 워낙 자신이 있던 터인지라 차일피일 미루고 지내던 중 어느날 또 한번의 약간 분홍색의 소변을 보았다. 이번에는 무언가 찝찝한 느낌을 받고 바로 필자를 찾아 왔다.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 현미경적 검사를 하였더니 다량의 적혈구를 볼 수 있었으나, 배설

성 요로촬영-조영제를 정맥 주입하여 신장, 요관, 방광등의 요로를 관찰하는 방사선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방광내로 집어 넣어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를 하여 확진을 하라고 하였더니 특수 촬영에서도 아무 이상없는데 무슨 소리라며 펼쳐 댔다. 절대 아프지 않게 할 것이라고 오히려 의사인 필자가 사정하고 부탁하였더니 그제서야 마지막 못해 허락하였다.

방광내시경검사에서 방광측벽에 땅콩만한 크기의 암을 다행스럽게도 발견할 수 있어(여기서 다행이라는 얘기는 초기에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으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레이저광선으로 무사히 치료되었고, 그후에는 필자가 오라는 날마다 꼭꼭 찾아와서 검사를 받는 그야말로 착한 환자가 되었다.

방광암은 비뇨기과에서 가장 흔한 암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남자에서 10대 사망원인암의 하나이다. 발생연령층은 40세 이상 특히 50세에서 60세 사이에 호발하고 남녀비는 3~4:1로 남자의 발생 빈도가 높다. 사망을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남녀의 3년, 5년 생존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진단시 환자의 60~80%가 초기암인 표재성 방광암이며 또한 경요도적 전기 절제술이나 필자의 병원에 있는 레이저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레이저치료를 할 경우에는 입원기간도 불과 4, 5일정도로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하여 오히려 환자들이 치료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정도이다.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볼수 있는 요로내시경등에 의해 혈뇨의 원인 규명에 있어 조금의 실수도 없다.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간에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소변이 붉게 나왔다가 하루나 이틀만에 맑은 오줌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환자측으로 볼때도 어디가 아프거나 혈뇨가 계속 되면 모르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맑아지니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병원을 찾을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요로계의 종양, 특히 방광암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지난주건 지난달이건 아니면 몇개월 전이라도 혈뇨가 있었다면, 특히 중년이후의 나이라면 즉시

방광암의 약 50%와 여성 방광암의 33

성 요로촬영-조영제를 정맥 주입하여 신장, 요관, 방광등의 요로를 관찰하는 방사선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방광내로 집어 넣어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를 하여 확진을 하라고 하였더니 특수 촬영에서도 아무 이상없는데 무슨 소리라며 펼쳐 댔다. 절대 아프지 않게 할 것이라고 오히려 의사인 필자가 사정하고 부탁하였더니 그제서야 마지막 못해 허락하였다.

방광내시경검사에서 방광측벽에 땅콩만한 크기의 암을 다행스럽게도 발견할 수 있어(여기서 다행이라는 얘기는 초기에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으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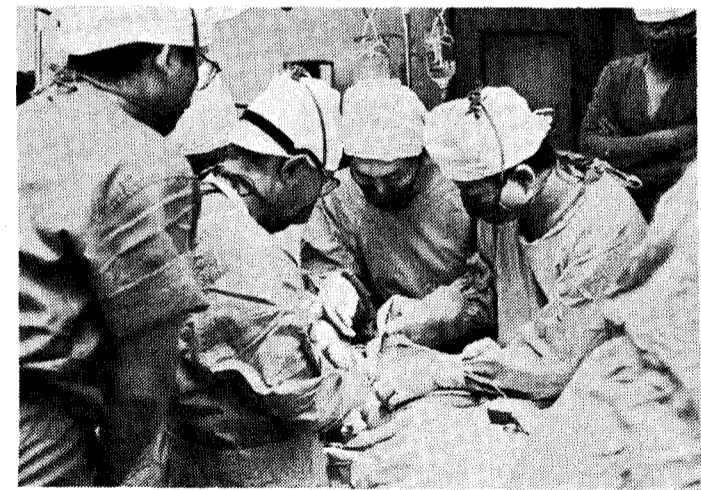
물론 중년이후에서 혈뇨등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검사하여 조기발견했을 때의 얘기고, 또한 이중 50~70%가 1년 이내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초기암의 치료를 하더라도 방광내 항암제주입등의 재발억제요법을 시행하고 최소한 3년정도는 주기적인 내시경검사를 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재성 방광암보다 좀더 진행된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이 방광근육층에만 국한 되었을 때는 근치적 방광전적출술을 시행한다. 수술명의 난해함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데, 방광전체를 제거하고 회장등을 이용하여 인조방광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방광외의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요법이나 최근에 개발된 항암-카테일요법(2개 이상의 항암제를 섞어서 투약하는 것으로 하나만을 쓰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물론 진행된 암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어느정도는 잘 치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인 추적검사이다. 표재성 방광암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 중 5~20%에서만 침윤성으로 진전하므로 5년 생존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방광암 역시 예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광암은 전신전이가 없는 한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상소견을 자각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혈뇨라는 적신호를 통해 비교적 초기에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므로, 눈에 보이는 혈뇨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검사등의 다른 검사중에 우연히 발견된 현미경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라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진단 및 치료라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초기 발견하면 레이저치료 할 경우 4~5일로 간단히 치료 가능



(사진은 記事특정사실 內容과 관련없음)

체질 개선

성공한 남편 뒤에는 아내의 그림자가 있다

씨그린골드와 함께 골드부부, 골드인생!

씨그린골드 —
어쩌다 먹는 보약이 아닙니다.
잘 챙겨먹는 세계식사가 건강을 지켜주듯이
씨그린골드는 늘 가까이서 건강체질로
바꿔주는 효소 건강식품입니다.

요즘, 남편건강은 어떠세요?
무척 피곤해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버락치기 보약으로 그때그때 피로를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체질에 있습니다.
피로는 바로바로 씻어내고
활력이 솟아나는 건강체질로 개선해야 합니다.

씨그린골드는 해조류와 토코페롤, 현곡류등을 효소화한
활성체제로 체질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켜드립니다.
남편의 힘찬하루 —
아내의 건강지혜가 만듭니다. 씨그린골드로 부부가 함께
보다 활기차고 보다 젊은 골드인생을 즐기십시오.

활기있는 생활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씨그린골드!

씨그린골드는 갱년기 체질개선, 임신, 수유기,
노화기, 병후회복시 건강증진에 좋습니다.

본 제품은 특허제품입니다
등록 제 3240호



해조류·토코페롤 활성복합효소

씨그린골드

문의처 : (02) 235-0045 (대)